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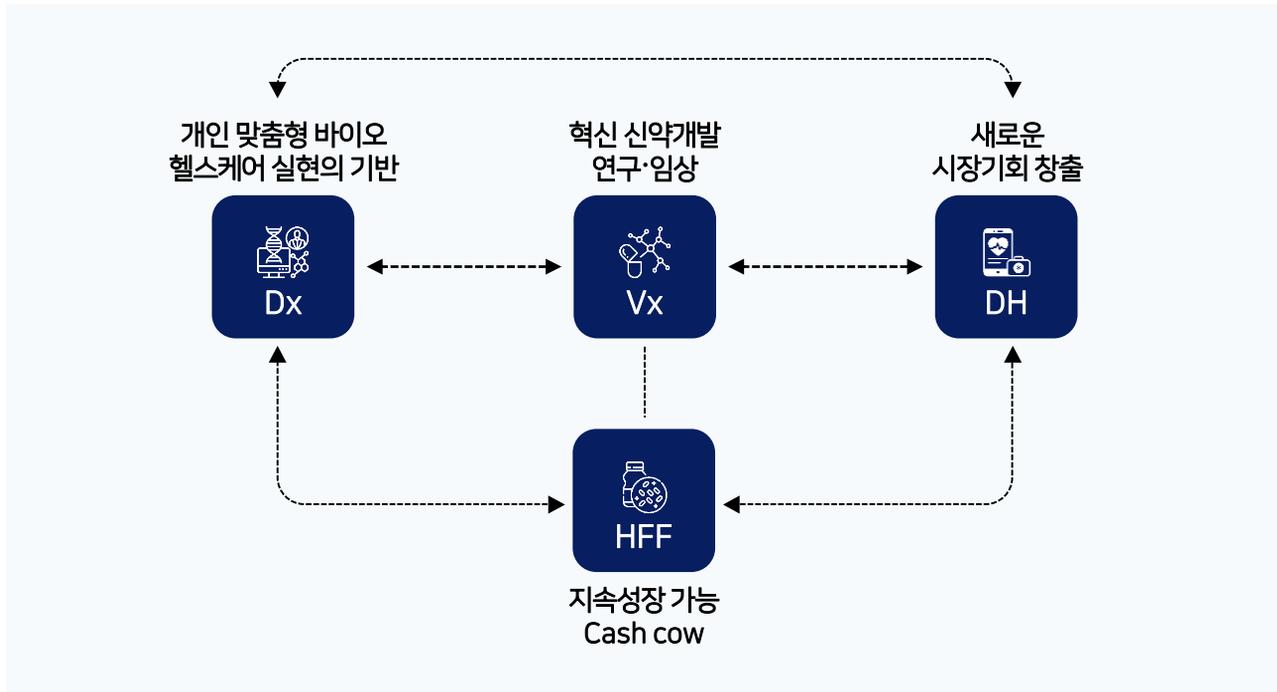
Dx&Vx

IR Letter

(2024.10)



Dx&Vx Business Roadmap



의료진단

Dx&Vx의 유전체진단과 체외진단은 의료비용 절감과 치료결과 개선에 기여합니다. 유전체진단기술은 더욱 정확하고 개인화된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신약개발과 결합해 의료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동반진단 서비스는 당사 및 타사 신약개발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환자 개인 맞춤형 치료제의 개발을 촉진합니다.

유전체진단
체외진단 및 CDMO
지노믹스 CRO
동반진단서비스 (CliDex)



컨슈머 헬스케어

진단 기술을 활용하여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질병의 예방, 치료, 관리를 위한 통합 컨슈머 헬스케어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별 질환에 대한 예방은 건강기능식품, 치료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관리는 생활 및 위생방역용품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하고 있으며 높은 매출 성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 보조제
뉴트리션 제품
국내외 CSO
기능성 스킨케어/개인위생용품



신약개발

관계회사 Oxford Vacmedix가 개발 중 항암백신 OVM-200의 라이선스인을 통해 자체 국내외 임상1b상을 개시할 예정이며, 종속회사 에빅스젠의 안구건조증 치료제 임상2상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경구용 비만치료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치료제, mRNA 항암백신, 항암항체신약 등의 자체 개발 신약 파이프라인을 보유 중입니다.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신약
ROP 및 mRNA 항암백신
항암항체신약, 유기합성신약
안질환 치료 신약



디지털 헬스케어

Dx&Vx는 유전체 분석 플랫폼을 결합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와 바이오 제약전문포털인 K-hub의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 치료 중심에서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방향을 바꾸고 궁극적으로 CDSS(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라는 의사나 의료 종사자들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K-HUB
비대면 진료 서비스
AI 기반 신약 개발 플랫폼
스마트 진단기기

2024년 9월 Performance Summary

-  경구용 비만치료제 두번째 후보물질 특허 출원
-  자회사 에빅스젠, 안구건조증 치료제 점안 제형 국내 특허 출원
-  항암항체신약 연구성과 공개
-  혁신적 범용 감염병 치료제 개발 전략 본격화
-  펩타이드 전문가 영입
-  비만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완성
-  유상증자 완료 및 재무건정성 강화



신약개발

경구용 비만치료제 두번째 후보물질 특허 출원

당사는 'GLP-1(Glucagon-like peptide-1)' 수용체 작용제를 기반으로 한 두 번째 경구용 비만치료제 신약 후보물질에 대한 특허 출원을 9월 2일에 완료했습니다. 이는 지난달에 이은 추가 특허 출원으로, 당사는 비만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개발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원한 특허들은 저분자 GLP-1RA 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서로 다른 화합물 구조와 작용 기전을 통해 차별화된 효과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당사의 신약개발은 한미약품과 대응제약 출신의 박사급 연구진이 주도하고 있으며, 특히 신약개발을 총괄하는 권규찬 대표는 한미약품에서 다수의 제품을 미국 FDA 승인까지 이끈 경험이 있는 신약개발 전문가입니다. 국내외 제약·바이오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조기 라이선스 아웃, 글로벌 공동임상 및 연구비 투자 등 다양한 전략적 협력을 모색하며, 경구용 GLP-1 비만치료제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자회사 에빅스젠, 안구건조증 치료제 점안 제형 국내 특허 출원

당사의 자회사인 에빅스젠은 안구건조증 치료제의 점안 제형 관련 국내 특허 출원을 2024년 9월 완료했습니다. 당사는 에빅스젠 지분 63%를 보유하고 있는 최대주주입니다. 에빅스젠에서 개발 중인 이 치료제는 기존 제품 대비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임상 1상에서 안전성과 약동학적 특성, 내약성을 확인했습니다. 에빅스젠은 내년 초 미국 FDA에 임상 2상 시험계획서(IND)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한편 전 세계 안구건조증 치료제 시장은 2027년까지 6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에빅스젠은 이미 출원한 용도 특허에 이어 추가로 점안 제형 특허 출원을 완료하며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 및 바이오 기업과의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으며, 조기 기술 이전이나 공동 임상을 통한 다양한 전략적 협력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항암항체신약 연구성과 공개

당사는 계열내최초(First-in-Class)로 개발 중인 신규 항체 신약 후보물질 'DX-DRG-B01'의 개발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신약은 암에서 자주 발견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성공 사례가 없는 새로운 바이오마커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디엑스앤비엑스 연구진은 암 유전자 분석을 통해 어려운 항원을 타겟으로 할 수 있는 부위를 예측한 라이브러리를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T세포 수용체가 인식할 수 있는 항체 후보물질을 개발 중입니다. 또한, 암세포에 대한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면역세포 인게이저(engager)' 플랫폼도 완성 중에 있습니다.

혁신적 범용 감염병 치료제 개발 전략 본격화

당사는 글로벌 석학 조남준 박사를 영입한 후, 그가 공동 대표로 있는 루카에이아이셀과 항바이러스 신약 개발에 대한 공동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루카에이아이셀의 신약 후보물질 AviPep(LAC-003)은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대응 가능한 범용 항바이러스 치료제로, 코로나19바이러스와 Dengue 바이러스 등 다양한 팬데믹 바이러스에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팬데믹 대응 기술로 인정받고 있으며, 조남준 박사는 국제 보건 기관들과 협력하여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당사는 이번 협력을 통해 치명적인 바이러스 감염병 및 잠재적인 넥스트 팬데믹을 미리 대비한 치료제를 사전에 준비하여 미래 팬데믹의 발생에 따른 대비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펩타이드 전문가 영입

당사는 펩타이드 신약 개발 및 링크 기술 전문가인 임창기 전무를 신약연구 3팀장으로 영입했습니다. 임 전무는 한미약품, 휴온스그룹, 안국약품, 센트릭스바이오에서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펩타이드 및 재조합 단백질 신약 개발, 항암 항체 신약 개발 등의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이번 영입은 현재 옥스포드 백메딕스와 협업 중인 ROP 기반 항암백신 OVM-200의 개발과 상업화를 가속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OVM-200은 임상 1a상을 완료하고, 현재 1b상을 진행 중이며, 최근 라이선스 합의에 도달해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해당 파이프라인의 한국, 중국, 아시아 지역에서 후기 임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이번 펩타이드 개발 전문가 영입을 통해 ROP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개발 속도를 가속화하여 신속한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비만 대사질환 파이프라인 완성

당사는 비만 대사질환 파이프라인을 완성하고 연구개발 및 상업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이미 개발 중인 경구용 비만치료제와 먹는 항비만 유산균 균주에 이어 GLP-1 기반의 펩타이드 주사제 개발을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비만치료 옵션을 확보했습니다. 경구용 비만 치료제는 기존 주사용 비만치료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환자의 편의성과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글로벌 회사들도 많은 임상 개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구용 비만치료제 개발 외에도 마이크로바이옴 연구소를 통해 체지방 감소에 효능이 있는 항비만 균주를 발굴하여 특허 출원을 완료하고,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비만 치료용 건기식 및 신약 개발 과제들도 진행 중입니다. 새로운 비만치료 파이프라인으로 개발할 펩타이드 기반 주사제는 최근 합류한 임창기 전무가 주도할 예정입니다. 임창기 전무는 펩타이드 설계 및 링크 기술 전문가로서 OVM-200 항암백신과 더불어 비만치료 주사제 분야에서도 GLP1 계열 등 펩타이드 설계와 합성 등 신규 프로젝트를 이끌 예정입니다.



경영 전반

유상증자 완료 및 재무건정성 강화

당사는 지난 5월 29일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9월 30일 신주 1,900만주가 상장되며 유상증자를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 424억원의 공모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번 유상증자를 마무리함으로써 재무구조 개선 및 연구개발 자금을 확보하여 신약개발 및 사업 확장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유상증자에 최대주주인 임중윤 한미약품 이사의 신주인수권증서를 코리그룹이 매수하여 참여하였습니다. 코리그룹은 2009년 홍콩에서 설립된 기술개발 및 투자 회사로, 백신 및 바이오 신약, 디지털헬스케어 연구개발 등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번 코리그룹의 유상증자 참여는 양사 간 신약개발과 비즈니스에서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갈 것으로 기대합니다.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용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작성한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최종 투자결정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